

되새겨보는 농사와 세시풍속(歲時風俗)

■ 농사는 천하지대본



■ 입춘첩(立春帖)

강 용 권

동아대학교 인문대학장
문화공보부 문화재전문위원
문학박사



1 머리말

세시풍속은 해와 때의 풍속

농사와 관계되는 세시풍속을 앞으로 6회에 걸쳐 연재하게 됨에 앞서, 세시풍속의 개념에 대하여 언급해 두고자 한다.

세시풍속(歲時風俗)이란 해(年·歲)와 때(時)의 풍속이다. 세(歲)는 1년이고, 시(時)는 1년 4계절(춘·하·추·동), 12개월의 달(月), 24절후(節候), 짧게는 날(日)〈설날, 보름날, 칠석날...〉, 또는 하루를 열 두 때로 나눈 때(子時, 午時...)를 의미한다. 때문에 각종 문헌에 세시와 유사한 용어로 세사(歲事), 시령(時令), 월령(月令), 절후, 절일(節日), 명일(名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농경민족인 우리 겨레는 상고(上古)부터 태음력(太陰曆)을 사용하여 달의 차고 기우는 것과 농사의 경영을 연관시켜 생산력(生産力)을 형성하여 왔다. 1895년<고종 32>에 태음력을 도입한 지금에 있어서도 농·어민의 생산력은 음력 사용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하에 기록하는 연월일은 음력임을 일러둔다.

가례, 기복, 기풍, 시식등으로 나뉘

세시풍속의 역사를 문헌에 의하여 찾

아 보면, 삼국사기에는 진덕여왕 5년(651 A.D)에 왕이 조원전(朝元殿)에 나아가 백관의 정하(正賀)를 받으니 이것이 하정(賀正)의 시초라 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설의 의식이 조정이나 민간에 있었다고 보아지나 기록상으로는 이것이 처음인 상시다. 한가위도 신라 유리왕 5년(32)의 가배(嘉俳)조에 보이니 그 연원은 삼국시대에 소급됨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에 보면, 신라 소지왕 10년(488)에 정월 보름 약밥의 유래가 기록되어 있고 또 상자일(上子日)은 신일(愼日)이라 하고 있는 사례 등으로 미루면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는 풍속이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 나라 세시풍속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상숭배와 가례(家禮), 공동체의 기복(祈福), 기풍(祈豐), 놀이, 시식(時食)으로 대분할 수 있다.

인멸되거나 변질된 것도 많아

가례로는 설과 추석의 차례·성묘를 비롯하여 삼짇날·한식·단오·유두·칠석·시월도신·동지의 차례, 천신, 성묘 등이 있고, 부락 공동의 제의로는 서낭제, 벌신제, 기우제, 도신제가 있고, 개별적으로는 용왕먹이기·뱃고사·산신제등이 있다. 놀이로는 윷놀이·널뛰기·연날리기·씨름·그네뛰기를 비롯하여 즐다리기·탈놀음등의 세시적 놀

이가 있고, 철따라 먹는 시식도 지역에 따라 특색을 가진다.

이상의 행사보다도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는 개인이나 가정 또는 마을의 행복을 축원하는 기복행위와 풍요를 기원하는 기풍행사이다. 이같은 행위의 내용을 보면, 예방·축원·주술·점복(占卜)·금기(禁忌) 등이 많다. 따라서 생활의 과학문명화와 국민의 의식구조나 가치관의 변화에 의한 사회변동으로 세시풍속은 인멸되거나 변질된 것이 많아졌음을 일러 두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농사와 세시풍속에 있어서도 농경의 기계화에 따른 풍속의 변화는 심한 바 있다. 이를테면, 지난날 경작과 운반의 수단의 담당은 주로 소(牛)가 했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지증왕 3년(502)에 처음으로 우경(牛耕)을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소는 농민으로서는 필수 노동력이었기에 상축일(上丑日)의 풍속은 엄격하고 신중히 지켜져왔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예가 그것이다. 소보다는 경운기를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천하대본여긴 선조발자취 더듬어

앞으로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의 농사와 세시풍속을 고찰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이미 사라진 습속이 많다는 사실을 전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 선조들은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여기고 얼마만큼 정성을 드렸느냐 하는 그 발자취를 더듬어서 그 인간성이라든가 근면성을 배우고자함이 이 연재의 목적이라고 생각된다. 개중에는 미신으로 돌릴 것도 있을 것이고 경험과학으로 삼을 것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풍속은 지역에 따라 동질성이나 상사점이 있는가 하면 이질적 특색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농사세시는 거의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에 극히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지명을 밝히기로 한다.

2 1·2월의 세시풍속

농사를 인간생존의 척도로 생각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시풍속 중에 행복을 비는 행위와 풍작을 기원하는 행위가 가장 많은데, 이 두 행위 중에서도 기풍습속이 절실함을 알게 된다. 농사를 위한 날씨점(占)의 경우를 보면, 설날부터 정초·입춘날·상원·정월 그믐날·2월 6일·2월 20일·3월 3일·단오·복날(伏日)·여름·처서·추석·백로·가을·10월 1일·동지·설날 그믐에 이르기까지 1년 내내 점을 치고 있다. 이로 미루면 농사를 인간 생존의 척도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누런 곡식이 익은 꿈을 꾸면 좋다. 참새가 먼저 오면 비가 많아서 시절이 좋다. 설은 질어야 좋고, 보름은 맑아야 좋다.

대보름 달빛아래서 풍작을 축원

그런데, 풍농을 축원하는 풍습은 정월달이 가장 많다. 정월 중에서도 상원까지에 집중되어 있고 또 보름달 행사가 더욱 많음을 보면, 설날과 정초는 1년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고, 보름은 그해 처음 맞이하는 망일(望日)이라는 점에서였을 것이다. 달은 생산을 상징하기에 첫째 처음 맞는 보름달빛 아래서 한해 농사를 계획하며 풍작을 축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원이 지나면 모든 놀이를 끝내고 새해 농사일에 들어가는 하나의 마디가 된다. 이제 설에서 상원까지의 풍습을 중심으로 2월 말까지의 농사에 관한 세시풍속을 간추려서 참고자료로 삼으려 한다.

(가) 점복(占卜) 행위

점복행사의 일시와 내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나, 그 대강을 적기로 한다.

(1) 농사꿈 : 설달 그믐날 밤이나 초하루의 꿈을 해석하여 풍흉(豐凶)을 점친다. 길몽(吉夢) : ① 누런 곡식이 익은 꿈을 꾸면 좋다. ② 나락·보리·콩등이 보이거나 이런 것들을 남이 자기에게 갖다 주는 꿈을 꾸거나 농사 짓는 꿈을 꾸면 좋다. ③ 꿈에 비가 오면 좋다. ④ 꿈에 미

꾸이 쌓이면 풍년이다. 악몽 : 곡식이 흩어지는 꿈을 꾸면 흉년이다.

(2) 짐승 거동 : ① 참새가 먼저 오면 비가 많아서 시절이 좋다. ② 부엉이가 울면 목화가 잘 되고, 황새가 울면 벼·보리가 잘 된다.

(3) 설날새 : ① 설은 질어야 좋고, 보름은 맑아야 좋다. ②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 ③ 눈이 많이 오면 가문다. ④ 동풍이 불면 흉년이 든다. ⑤ 남풍이 불어와 풍년이 든다.

(4) 콩불음 : 설달 그믐날 밤에 수숫대를 새로 쪼개어 콩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 12개를 뚫어 거기에 콩을 넣고 물을 뿌린 다음, 쪼개어 두었던 한쪽 수숫대를 덮어서 새끼로 매어 두었다가 초하루 아침에 보아서 콩이 불어 있는 것에 해당하는 달에는 비가 많고, 콩이 불지 않은 달에는 비가 적다고 믿는다.

(5) 방아고방점 : 설달 그믐날 밤에 방아고방을 깨끗이 쓸고, 그 자리에 기름을 담은 접시에 심지를 꽂아 불을 밝혀 놓았다가, 초하룻날 아침 접시를 꺼내보아서 고방에 쌀알이 들어 있으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6) 입춘 : 입춘시에 보리를 뽑아 보아서 새 뿌리가 내렸으면 풍년, 안 내렸으면 흉년이라 점친다. 입춘첩에 풍년을 기원하는 글귀를 써 붙인다.

(7) 보름일기 : 맑아야 풍년이 든다.

(8) 소먹이점 : ① 보름날 보리밥, 쌀밥, 나물, 무우 등을 소에게 먹여 보아서, 그

무명씨를 먼저 먹으면 목화가 잘 된다. 남쪽에 치우치면 풍년, 북쪽에 치우치면 흉년이다. 정월 뇌성이 많으면 7월장마가 지고, 2월 뇌성이 많으면 미역이 비싸다고 한다.

중 먼저 먹는 것이 풍작이라 점친다. ② 나물과 밥을 먹여 보는데, 밥을 먼저 먹으면 시질이 좋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시질이 좋지 않다. <반대로 해석하는 곳도 있다> ③ 무명씨를 먼저 먹으면 목화가 잘된다.

(9) **짚불점** : 보름날 새벽에 짚단을 들고 불을 붙여 태워보아, 짚 대가리의 재가 아래로 늘어지면 풍년, 하얗게 부스스하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10) **곡식점** : 카를 엮어 두었다가, 곡식이 있으면 풍년이 든다고 점친다.

(11) **달농사점** : 보름달의 위치, 후박(厚薄), 색깔로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① 남쪽에 치우치면 풍년, 북쪽에 치우치면 흉년이다. ② 남쪽이 두꺼워 보이면 남쪽이 풍년, 북쪽에 두꺼워 보이면 북쪽이 풍년, 붉은 색이 많으면 가물고, 흰색이 많으면 풍년이 든다. ③ 달이 반듯하게 뜨면 시질이 좋고, 사방의 어느 한쪽이 기울면 기울어진 방향에 시질이 좋지 않다. 넓게 뜨고 희게 뜨면 시질이 좋고 되게 뜨고 붉게 뜨면 시질이 안좋다. 달이 뜰 때, 해가 남아 있으면 불길하고, 해가 졌으면 길하다. ④ 붉은 색이면 가물고 흰 색이면 비가 많다. 높고 붉게 뜨면 가물고, 낮고 희게 뜨면 비가 많다. 달의 동

쪽이 두껍게 보이면 천수답이 잘 되고, 서쪽이 두꺼우면 수답(水畓)이 잘되고, 남북이 두꺼우면 밭곡식이 잘 된다.

(12) **춘상갑(春上甲)의 비** : 정월 첫 갑자일에 비가 오면 오곡에 뿔이 난다고 한다. 곧 그해 비가 많다는 뜻이다. 비가 많아서 흉년이 든다고 점친다.

(13) **정월 뇌성** : 정월 뇌성이 많으면 7월 장마가 지고, 2월 뇌성이 많으면 미역이 비싸다고 한다.

다음은 2월의 점복행위이다.

(14) **좀생이 보기** : 묘성(昴星)의 빛깔과 달과의 거리를 살펴 그해의 풍흉을 점치는데, 대개 6일에 본다. ① 좀생이와 달이 가까우면 흉년, 멀면 풍년이 든다. ② 좀생이가 달보다 앞서 가면 흉년이 들고, 달이 좀생이보다 3발짝만 앞서가면 풍년이 든다. ③ 좀생이가 달을 급하게 따라가면 시질이 좋지 않고, 천천히 따라가면 시질이 좋다. ④ 좀생이가 달보다 북쪽에 있으면 풍년이 든다. ⑤ 좀생이가 달 뒤로 돌아가면 풍년이 들고, 앞으로 나오면 흉년이 든다. ⑥ 좀생이가 삼태성(三太星)과 거리가 멀면 풍년이 들고, 가까우면 흉년이 든다.

(15) **20일 날씨** : ① 이날 구름이 짙으면 그해 비가 많고, 맑으면 가문다. ② 이날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 “구름 낀 데만 얻어먹으러 가라”고 할 정도이다. ③ 비가 오면 대풍이 든다 하여 “개불알에 이팍알이 붙는다”고 할 만큼 풍년이 든다.

<다음 호에 계속>